
라틴아메리카로부터의 팬데믹 : 잠정적 균형을 위한 9개의 논제

마리스테야 스밤파

사회학자

원제와 출처: Maristella Svampa, “La pandemia desde América Latina: Nueve tesis para un balance provisorio”, *Nueva Sociedad*, No. 291, enero-febrero de 2021, pp. 80–100.

핵심어: COVID-19, 사회생태학적 위기, 그린 뉴딜, 생태사회 협정, 라틴아메리카

2020년은 우리의 뇌리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기억될 해가 될 것이다. 어느 해와는 달리 파괴적이며 파멸적인 이 해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주체성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 치유 불가능한 커다란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비록 일부에서는 2021년이 보다 안정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2020년대의 초에 COVID-19로 시작된 시간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기적의 백신으로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그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특성이 아직 완전히 정의되지 않은, 하지만 그 축과 기준점이 얼핏 보이는 듯한 문명 구성의 윤곽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이 중 일부에 대해 필자는 본 글을 9개의 논제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1. 팬데믹은 주변부의 문제들을 중심부의 문제들로 전환시켰다. 즉 사회적 불평등과 소유권간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인수공통전염병과 팬데믹 그리고 사회생태학적 위기 간의 관계를 가시화하였다.

COVID-19는 팬데믹 발생 이전에는 주변부에 존재하였던 문제들을 최소화하거나 비가시화하여 무대 중앙에 배치하였다. 이번 팬데믹은 한편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인종적, 지역적 불평등과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부의 편중 현상을 생생히 드러내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출현한 지 수 십년이 지난 후 보건 뿐만 아니라 교육 및 디지털 격차, 주거 시설에 대한 접근성, 거주 환경의 질적 저하와 연관된 기본적 서비스가 퇴행하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하였다.

바이러스의 확산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원 하에 지난 30년 동안 공고해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모델이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신자유주의가 사망하였다거나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팬데믹으로 인해 촉발된 위기는 모든 수준에서 극심한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켰다. 옥스팜(Oxfam) 보고서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에서 경제적 엘리트 계층과 슈퍼 갑부들의 자산은 팬데믹 기간 동안 482억 달러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COVID-19가 발생하기 이전보다 17%가 증대된 수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지역에서 팬데믹으로 인해 야기된 경기 불황으로 인해 5천 2백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빈곤층으로 추락하였고 4천만 명이 직업을 상실하게 되면서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경제는 15년 전으로 후퇴하였다.¹⁾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에 인류학자인 리타 세가토(Rita Segato)는 불평등이라

는 단어는 거대한 사회적 추잡함을 그래프로 나타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녀에게 있어 이 세계는 “소유와 지배에 의해 표식된 세계”인 것이다.²⁾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소유의 세계”와 마주하고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주었다.

둘째, COVID-19로 유발된 팬데믹은 사회생태학적 위기와 나쁜 개발 모델 그리고 보건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명료하게 보여주었다. 2020년 3월 이전까지 “인수공통전염병”(Zoonosis)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었고 아직까지도 일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개념, 혹은 인간 사회와는 다소 거리가 먼 개념일 수도 있지만 팬데믹의 배후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다.

COVID-19의 이면에는 산림파괴, 상술하면 생태계 파괴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이로 인해 야생 동물들이 자연 환경으로부터 축출되었고 수 천 년 동안 격리되어 있었던 인수공통감염 바이러스가 방출되어 도시화된 환경 속에서 다른 동물들 및 인간과 접촉하게 됨으로써 종들 간 방어 장벽을 뛰어 넘는 중간 감염이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COVID-19는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인수공통감염 바이러스는 아니다. 인수공통감염 바이러스는 이미 존재하였고 심지어는 에볼라나 사스,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 독감,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등 COVID-19보다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도 존재하였다.³⁾

COVID-19는 비록 중국에서 처음 출현했지만 이것은 사실 지구의 다른 어떤

1) Mar Centenera, “La pandemia agranda la brecha en América Latina: ocho nuevos multimillonarios y 50 millones más de pobres”, en *El País*, 29/7/2020.

2) Rita Segato, “El mundo de hoy es un mundo marcado por la dueñidad o el señorío”, Comunicado de prensa, Universidad Internacional Menéndez Pelayo, 26/8/2019.

3) François Moutou, “Las zoonosis, entre humanos y animales”, en *Nueva Sociedad*, Núm 288, 7-8/2020, disponible en <www.nuso.org>.

지역에서도 출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수공통감염 바이러스의 대유행의 기저에는 세계적 규모의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구축된 고도의 생산성과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생산 모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이 추구하는 가치인 고도의 생산성 및 경제적 이익 극대화는 생물적 다양성의 절멸을 수반하는 단일 작물 경작의 확대, 천연 자원의 남획, 비료 및 살충제에 의한 토양 오염, 개간 및 산림 벌채, 대규모 축산업에 기반을 둔 식량 생산 모델의 확장 등과 같은 생태계의 악화 및 파괴를 수반하고 있다.

이렇게 토지 소유 및 개발에 대한 자본주의의 발전은 빠르게 변이하며 치료법이 없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인수공통감염 바이러스들을 대규모로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핵심적 요소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요약하지만 이번 COVID-19 팬데믹은 인류세(Anthropocene)⁴⁾와 자본세(Capitalocene)⁵⁾가 기후

4) 1960년대 말 소련 과학자들이 신생대 제 4기를 “인류세”로 명명하였고 1980년대 미국 생물학자 유진 필모어 스토머(Eugene Pilmore Stoermer)가 인간활동의 영향을 뚜렷이 반영하는 지질시대를 “인류세”로 지칭하였다. 이후 1995년 오존층 연구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네덜란드 과학자 파울 요제프 크뤼첸(Paul Jozef Crutzen)이 농업혁명기부터 현대까지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인간 활동의 결과들을 총칭하여 “인류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대중화 되었다. 즉 크뤼첸은 지질 시대의 구분에 있어 신생대 제 4기 충적세의 다음 지질 시대로 “인류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인류세”는 지구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질 시대의 구분에 있어 최초로 인간이라는 특수한 생물종이 개척한 지질 시대로써 생물체로서의 인간의 힘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힘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인해 인간종이 결국에는 최후를 맞게 될 수 있다는 종말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과학계에서는 이 용어가 지질시대의 구분에 바탕이 되는 이론일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지만 특히 지구온난화, 기후 변화, 생태계 파괴, 지구 생물 멸종 등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오늘날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여주).

5) 인류세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용어로서 인류세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병업턴 대학교 사회학과 제이슨 무어(Jason Moore) 교수가 제시한 용어. 무어에 의하면 인류세는 인류가 지구환경 변화의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의미를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인류가 발명한 자본주의 사회구조 및 사회적 불평등이 지구환경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적 원인임을 간과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단순히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아니라 자본, 권력, 유기적 전체로서의 자연의 역사로 세계-생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 이윤을 도출하기 위해 노동, 식량, 에너지, 원자재 등 네 분야에 있어서 “저렴한 자연”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환경파괴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게 되었기에 인류세라는 용어보다는 자본세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여주).

변화와 지구 온난화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화와 잘못된 개발 모델의 문제라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이 용어들은 화석 연료 사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의 변모 양상, 삼림 벌채 및 집약적 축산업의 확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기후 비상사태의 또 다른 양상들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 모두는 전염병 대유행의 잠재적 원인들이다.

2. 우리가 팬데믹을 포착하고 분석하기 위해 사용해 왔던 은유들과 개념들은 역동적 의미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치적 언어의 중심에 호전적 은유를 유지하면서 “입구”의 은유에서 “몰락”의 은유로 이동하였다.

위험한 보건 상황의 산물로서 비상 브레이크의 발동은 거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결과를 초래한 매우 특별한 위기를 가져왔다. COVID-19가 유행하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호전적 은유, 즉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대한 언급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정치 언어를 관통하였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와 같은 호전적 은유의 사용은 “보이지도 않고” “정체도 알 수 없는” 적과 직면하여 이 적이 가져 온 막대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결속과 통합을 이룩해야 한다는 목표를 간과한 채 증상에 집중하고 구조적 원인을 흐리게 하고 숨기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본고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것이지만 팬데믹의 원인에 관한 정보가 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호전적 은유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 명확히 밝혀 볼 필요는 있다.⁶⁾

실제로 필자는 “입구”의 은유와 “몰락”의 은유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은유로

6) M. Svampa, “Reflexiones para un mundo post-coronavirus”, en *Nueva Sociedad*, Edición digital, Abril de 2020, <<www.nuso.org>>.

회귀하여 이것들은 살펴보고자 한다. COVID-19 팬데믹이 초래한 매우 이례적인 위기는 양면적이면서 모순적인 요구를 우리에게 하였다. 즉 한편으로는 전환과 연대 그리고 변화를 요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질서와 “정상성”으로의 회귀를 요구한다. 이렇듯 이례적인 위기는 통행의 시발점으로 이해되는 어떤 “입구”에, 즉 우리가 토착화시켰던 것들의 변성을 가져 온 초입에 우리를 위치시켰다. 인도의 작가인 아룬다티 로이(Arundhati Roy)가 그녀의 주목할 만한 글에서 강조하였듯이 우리가 세계를 뒤로 하고 있다는 느낌, 이전과는 다르고 불확실한 어떤 다른 세계로 우리가 진입하고 있다는 인상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⁷⁾

그런데 “입구”의 은유는 또한 갈림길을 암시하기도 한다. 즉 팬데믹으로 촉발된 위기는 팬데믹 발생 이전에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주변부에 머물러 있던 소유권 문제, 사회생태적 위기와 같은 모든 문명화 논쟁을 해결할 가능성을 열었다. 지금까지 인류는 더 공고한 권위주의, 보다 심각한 외국인 혐오와 불평등 그리고 생태적 황폐화 등을 통해 세계 붕괴를 가속화하면서 혼돈의 자본주의의 길을 공고히 해왔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입구”의 은유는 황당하면서도 불가능한 과제인 “재설정된 세계”의 창조 가능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오히려 그것은 어떤 이중적 차원을 수반하였다. 왜냐하면 팬데믹 초기에는 위기를 기회로 간주하는 보다 큰 변화에 대한 개념의 형성과 이해의 필요성을 추동하는 인지적 해방과정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연대 의식의 쇠퇴와 불평등의 고착화를 통한 인지적 폐쇄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언론인이자 작가인 나오미 클라인이 지적하였듯이 COVID-19로 유발된 위기는 재앙적 자본주의의 공식, 혹은 다음과 같이 정의

7) A. Roy, “The Pandemic is a Portal”, en *Financial Times*, 3/4/2020. 수잔나 아룬다티 로이(Suzanna Arundhati Roy, 1961-현재)는 인도 출신의 소설가이자 수필가로 대표작으로는 그녀의 첫 소설로써 맨 부커상을 수상한 『작은 것들의 신』(*The God of Small Things*) (1997)이 있다(역주).

되는 “쇼크 독트린”의 공식을 반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쇼크 독트린은)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심화시키고 엘리트 계급을 부유하게 하며 이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계층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로 전환시켜 버리는 정책을 추진하게 위해 대형 위기를 이용하는 정치적 전략이다. 위기의 시기에 사람들은 이 위기가 무엇이 되었건 간에 이 위기에서 살아남는 일상적 비상사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⁸⁾

COVID-19 팬데믹이 선언된 지 9개월이 지난 후 시사적이며 강력한 은유였던 “입구”의 은유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고 “뉴 노멀리티”라는 명칭 하에 우리가 목도한 것은 기존의 사회적, 생태학적 조건들의 악화와 퇴보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그 “붕괴”의 형상이 단일하면서도 동시에 다차원적인 방식으로 종합되는 그러한 것이었다. 붕괴는 기후 비상사태에 대한 많은 과학적 연구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생태적일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세계적이다. 붕괴의 확산 과정은 생태학, 경제, 사회, 정치 등 다양한 수준과 하나의 전체로 파악할 필요성은 없는 상이한 단계들 및 지정학적, 지역적, 사회적, 인종적 차이 등을 포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붕괴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⁹⁾

8) Marie Solis, “Naomi Klein: Coronavirus Is the Perfect Disaster for Disaster Capitalism”, entrevista en Vice, 13/3/2020. 나ومی 클라인(Naomi Klein, 1970-현재)은 캐나다 출신의 언론인으로써 대표작으로는 『노 로고』(*No Logo*) (1999), 『쇼크 독트린』(*Shock Doctrine*) (2007) 등이 있다. 여러 저작들을 통해 클라인은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였는지, 자본주의가 재난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였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와 현대 환경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환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기반 한 경제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여주).

9) 이 주제에 관해서는 Carlos Taibo, *Colapso, capitalismo terminal, transición ecosocial, ecofascismo*, Libros de Anarres, Buenos Aires, 2017을 참고하십시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붕괴의 시대”로의 진입은 미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탄생을 추동하였다. 즉 경험적으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파멸적이고 디스토피아적 이미지들의 번성을 목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이미지들 중 상당수가 멸종, 혼돈을 시사하는 정치적 언어 혹은 공개적인 반정치적 언어가 결합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론적이며 학술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파블로 세르비뉴¹⁰⁾와 라파엘 스티븐스¹¹⁾가 제시한 “붕괴학”(Colapsología)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의 탄생을 가져오는 것 같다. 붕괴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종말”에 관해 성찰해 볼 것을 지향하며 “가능한 한 인간적으로”¹²⁾ 세계의 종말을 우리가 통과하기 위한 요소들과 정책들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3. 팬데믹은 국제 협력 전략의 부재에 직면하며 국내적 의제로 밀려나게 되면서 다자주의와 세계적 지도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우리는 2020년 3월 이후 강한 국가의 귀환 혹은 재합법화를 목도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귀환은 또한 국내적 의제로의 후퇴라는 표현과 다르지 않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각 국가는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 과정 속에서 각 국가가 수행 가능한 보전 및 정치 전략의 가변성을 보여주었다. 각 국가별 차원에 있어 후퇴는 정책 결정의 행정부 집중 현상과 디지털 기술을 통한 시민권 통제

10) Pablo Servigne(1978-현재). 프랑스 출신의 작가로 생태학에 관련된 글을 많이 쓰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라파엘 스티븐스와 함께 집필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방법』(*Comment tout peut s'effondrer: Petit manuel de collapsologie à l'usage des générations présentes*) (2015)이 있다(역주).

11) Raphaël Stevens: 벨기에 출신의 작가로 복잡계 및 사회 생태학적 시스템 회복에 관련된 글을 주로 많이 쓰고 있다(역주).

12) P. Servigne y R. Stevens, *Comment tout peut s'effondrer. Petit manuel de collapsologie à l'usage des générations présentes*, Seuil, Paris, 2015, p. 26.

등과 같은 초현대적 결정주의와 중세시대 촌락 모델식으로 도시 봉쇄, 지역 봉쇄, 국가 봉쇄와 같은 지역적 분열의 강력한 과정을 결합하는 역설적 조합을 보여주었다.

COVID-19 팬데믹 비상 상황 앞에서 전 세계적인 공동 대응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분열 현상이 심화되었고 국제적 차원에서의 협력은 미미하였다. 이는 심지어 유럽 연합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듯이 팬데믹은 통합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트럼프 행정부 하의 미국은 국내적 차원에 있어서는 팬데믹에 대해 다른 국가들 보다 더 효율적이고 향상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의미에서 세계의 지도국가라는 역할을 포기하였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중국 및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다자기구들과의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표출되었고 대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각 주의 주지사들과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은 팬데믹 초기에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포함해 여러 국가들에 의료 지원을 하였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에서는 내부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군국화 과정이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취약성과 기술적 후진성으로 인해 디지털을 통한 통제보다는 훨씬 더 물리적인 영역적인 통제가 이루어진 라틴아메리카에서 군국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이 현상은 인도와 같은 일부 신흥국가에서 보다 악화되었고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장기적 지배 구조로써 인종주의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내부적으로 표현되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국가의 귀환과 이 국가 개념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국가와 공존하는 예외적 국가라는 양면성이 팬데믹 초기부터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팬데믹 시대에 대한 불완전한 서술에서 엘리트, 즉 가진 자들에 의해 구축된 명백한 식민화가 부과한 한계들을 고려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가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변형 가능성에 관한 이론적, 정치적

고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팬데믹은 세계적 무질서의 상황 속에서 민족주의적 경쟁을 강화하였다. 감염 예방에 효과적인 백신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뿐만 아니라 특정 백신을 얻기 위해 벌인 국가들 간의 경쟁이 이를 명백하게 반영한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은 백신을 선구매 하는 동시에 시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백신의 공급을 국민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백신 비축정책으로 인해 전 세계에 공급된 백신의 40-50%를 부유한 국가들이 선점하였다. 이는 곧 가난한 국가들이 백신을 확보할 기회가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¹³⁾ 가장 논쟁적인 사례가 바로 캐나다다. 진보적 정치인인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그 어떤 협력 전략에도 신경 쓰지 않고 7개의 다국적 제약 회사들과 4억 1,400만 도스의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수치는 캐나다에서 실제로 접종할 백신보다 5배나 많은 양이다.¹⁴⁾ 반면 지구적 남반구의 국가들, 특히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국가 전체를 공포에 질릴 수 있게 하는 COVID-19 2차 대유행에 직면하여 백신 확보를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4.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공중보건 정책, 경제 및 사회 정책을 통한 개입을 선택하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는 구조적, 상황적 한계를 드러나게 하였다.

COVID-19 팬데믹과 이것으로 인해 새롭게 펼쳐진 지평은 많은 질문을 제기

13) Amnistía Internacional, "Los países ricos ya están acaparando la nueva vacuna", 9/11/ 2020, <www.amnesty.org/es/latest/news/2020/11/wealthy-countries-already-hoarding-breakthrough-vaccines/>.

14) "Denuncian que los países ricos han acaparado dosis para vacunar casi tres veces a la población", en *La Vanguardia*, 9/12/2020.

한다. 전 세계적 차원에 있어 세계화를 다른 모델에 입각해 재고할 시간이 도래한 것 같다. 또한 사회적 의제를 환경적 의제와 결부하여 “공통적인 것”을 재건한다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강력하고 효율적이며 민주적인 국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유발된 경제적 충격에 대해 지역적, 일국가적 차원에 있어서 문제는 명확하다. 즉 사회적 회복을 위한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주변부 국가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물질적,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냐는 점이다.

실제 COVID-19로 인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기존의 사회적, 지역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인구 과밀과 건강증진에 대한 접근성 부족, 불충분한 보건 시스템, 비공식성, 성별 격차 등과 같은 구조적 결함이 악화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젠가는 대형 폭발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폭탄이 되어버렸다. 코로나 바이러스 1차 대유행이 유럽에서 잠잠해지자 세계 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가 유럽의 뒤를 이어 전염병의 진원지가 되었으며 2020년 11월 유럽에서 2차 대유행이 시작될 때 까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¹⁵⁾

라틴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사회적 위기 및 보건 위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최근에 발표된 유엔아동기금(UNICEF) 보고서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 18개국에서 총 26개의 한시적인 재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들 중 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온두라스의 케이스, 콜롬비아에서 시행한 연대지원금 프로그램의 2021년 12월까지의 연장 정책, 긴급 가계 지원금의 액수를 늘리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 칠레의 정책, 고용 안전을 위해 새로운 조치들을 도입한 니카라과 등의 재난

15) “Coronavirus: ¿por qué América Latina es la región con más muertes en el mundo?”, en *bbc Mundo*, 19/10/2020.

지원 프로그램들이 특히 눈에 띈다. 니카라과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 이와 같은 재난지원 프로그램을 가장 늦게 도입한 국가들 중 하나다.¹⁶⁾ 브라질에서는 자이루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이 보수주의적 정책을 포기하고 6,000만 명의 국민들에게 600 헤알(약 112달러)의 기본 소득 지급을 실행하였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정부는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되는 7,854,316명의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2020년 12월까지 긴급가족소득(Ingreso Familiar de Emergencia, IFE)을 지급하였다. 즉 식당에서의 급식지원금을 늘렸고 아르헨티나에서 일자리 창출의 제일 원천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들에게 탁월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업 신용과 관련된 일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또한 동시에 중소기업 및 일부 대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50%를 정부가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근로생산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경제학자인 루벤 로 부올로(Rubén Lo Vuolo)가 주장하듯이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비필수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이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고용 불안정 상태를 상시 경험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다. 더욱이 이들 계층은 대다수의 무주택자들,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가장 할 수 없는 계층과 일치한다.”¹⁷⁾ 국제노동기구(ILO)가 밝힌대로 전 세계 근로자의 54%가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로 부올로의 이와 같은 진단은 특정 지역

16) Mónica Rubio, Gerardo Escaroz, Anna Machado, Nurth Palomo, Luis Vargas y Marcela Cuervo, “Protección social y respuesta al COVID-19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III Edición: Seguridad social y mercado laboral”, UNICEF/ Centro Internacional de Políticas para el Crecimiento Inclusivo, Panamá, 7/2020.

17) R.M. Lo Vuolo, “La pandemia del COVID-19 y sus impactos en Argentina: el espejismo de la opción entre salud y economía”, en *Revista Rosa*, 10/11/2020.

만이 아닌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 재택근무의 확대 및 이른바 플랫폼 경제와 연관되어 노동계에서 발생한 변화까지 우리가 함께 고려한다면 노동시장의 파노라마는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앞서 언급한 유니세프 보고서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실업률은 2019년 12월 5.4%에서 2020년 12월 13.5%로 급증해 4,410만 명의 사람들이 직업을 상실하였다.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경제 예비 개요』에서 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ECLAC)는 이 지역 경제가 2020년에는 120년 만에 최고로 평균 7.7% 위축될 것이며 2021년에는 3.7% 반등할 것¹⁸⁾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경제 위기의 영향이 단기적이 아니라 중기적일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한편 파편화라는 맥락에서 볼 때 라틴아메리카에서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한 국가는 없었다. 2000년대 초 원자재 호황기 동안 경험했던 경제성장과는 상이하게 COVID-19는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나 진보적 헤게모니 없이 라틴아메리카를 파편화 하였다. 이전 세대 진보 사이클과는 매우 단절된 멕시코에서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의 경험, 아르헨티나에서 몰도된 일종의 저항도 진보주의로써의 페로니즘으로의 회귀, 볼리비아에서의 사회주의 운동당(Movimiento al Socialismo, MAS)의 새로운 승리와 함께 최근 가시화 되고 있는 제도적 회복 등은 그 어느 것도 진보주의의 두 번째 물결로 해석될 수 없다.

2000년부터 대략 2015년까지 확장되었던 진보 사이클이 끝난 후 진보주의의 중요한 부분이 상당히 고갈되었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따르면 불평등이라는 결과는 여전히 이 지역에서 논쟁중이다. 여기에 우리는 브라질에서의 극우정치세력의 등장을 추가해야 한다. 이것은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을

18) CEPAL, *Balance preliminar de las economías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Naciones Unidas, Santiago de Chile, 2020, disponible en <www.cepal.org/es/publicaciones/bp>.

관통하는 매우 권위적이고 반인권적인 사회적, 정치적 경향의 존재에 대한 반성을 우리에게 촉발한다.

요약하자면 라틴아메리카에서 새로운 점은 부상하고 있는 정치적 형세의 취약성과 함께 보건 위기, 경제 위기, 사회 위기 등의 세 가지 위기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라틴아메리카는 최근 발간된 한 책의 제목처럼 “사회적 붕괴로부터 COVID-19 이후의 보건 및 사회적 비상사태”로 그 축이 이동하였다.¹⁹⁾ 이 틀 안에서 우리는 대중의 인지적 해방이 전환기의 지각을 움직이는 “특수한 시간” 속으로 진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불평등의 증가와 신채굴주의(neoextractivismo)의 가속화로 특징 지워지는 포스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형태와 종류의 전환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점이다. 정치의 시대가 가속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가속화가 가져오는 현기증 속에서 사회에 대한 싫증과 혐오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의 이미지처럼 혹은 그 현상과 유사하게 정치 무대의 급격하면 서도 폭력적인 변형체로써 우리를 위협한다.

5. 비록 COVID-19로 인해 비상 제동이 걸리기는 하였지만 신채굴주의는 멈추지 않았다. 더욱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있어서 채굴주의의 가속화는 경제의 재활성화와 이른바 “뉴 노멀리티”에 대한 약속의 필수적인 한 부분을 형성한다.

COVID-19가 전 세계를 엄습했던 2020년 다양한 경제 활동의 중단이 7%의

19) Vanni Pettina y Rafael Rojas (eds.), *América Latina, del estallido social a la implosión económica y sanitaria post-covid 19*, Planeta, Lima, 2020.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리라는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하였다. 감금의 시대에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좁은 틈새를 통해 나와서 감히 도시를 돌아다니는 동물들처럼 우리는 온실 가스 배출량이 감소되는 현상이 결코 실현되지 않았기에 단순히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즉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위축된 결과로 생겨난 단기적이며 부수적인 효과였던 것이었다. 반면 COVID-19로 인해 촉발된 사회적 비상 제동은 상대적이었다. 이렇게, 한 예로 써 채굴주의는 결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사회환경적 갈등들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고 또 한 이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들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국가들의 공공 정책은 환경 요구들의 강화를 지향하지 않았다. 광업과 같은 많은 채굴 활동들이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지속되었고 개간 및 산림 벌채가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형 화재도 잇달았다. 팬데믹 기간 동안 라틴아메리카에서는 환경 운동가들이 지속적으로 살해되었는데 이 사실은 이 지역이, 특히 콜롬비아, 브라질 그리고 멕시코 등의 국가들이 여전히 환경 운동가들에게 있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는 점은 재확인하고 있다.

신채굴주의는 보수나 진보 등의 이념에 상관없이 이데올로기의 틈새를 통해 넘쳐나고 있다. 토지 개간을 위해 고의로 화재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습지 보호를 위한 법안 상정을 반대하는 소위 “화재 로비”가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히 정치권에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마투 그로수주(Mato Grosso)와 마투 그로수 두 술주(Mato Grosso do Sul)에 대부분 걸쳐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습지인 브라질 판타나우(Pantanal)에서는 2020년에 총 1,600건의 화재가 등록되었는데 브라질 국립 우주연구원(Instituto Nacional de Pesquisas Espaciais, INPE)의 자료에 따르면 이 해는 역사상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화재 신고가 접수된 해였다.²⁰⁾

2020년에 아르헨티나는 습지와 자생림에 피해를 끼친 화재발생 수에 있어 전 세계 2위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 부끄러운 현실 이면에는 대두 재배업자, 광산 업자, 토지 민간개발을 주로 하는 대형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로비가 있었다. 이 화재들은 14개 주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으며 백만 헥타르 이상을 파괴하였다.²⁰⁾ 더욱이 아르헨티나와 같은 몇몇 국가들은 화석 연료에 대한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석유 회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화석 연료의 가격은 수요의 감소로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절정은 완강한 우익 세력의 반대에 직면하여 현실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웠던 부유세 부과에 대한 승인이었다. 이 세금은 팬데믹으로 인해 유발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는데 예상 수금총액은 바카 무에르타(Vaca Muerta)²²⁾의 대규모 석유매장 지역에서 수압파쇄법²³⁾을 통해 천연가스 추출을 위해 조달된 자금 총액의 25%정도를 상회하는 액수이다.

멕시코에서는 2020년 9월 라틴아메리카의 위대한 정치 생태학자들 중 한 명으로 환경자원부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던 빅토르 톨레도(Víctor Toledo)가 장관직

20) "Pantanal: 7 impactantes imágenes de los incendios en el humedal más grande de Sudamérica", en *BBC Mundo*, 11/9/2020.

21) Iván Federico Hojman, "Más de un millón de hectáreas fueron arrasadas por el fuego", en *Télam*, 25/12/2020.

22) 아르헨티나 북부 파나고니아의 네우켄(Neuquén), 리오 네그로(Río Negro), 라 팜파(La Pampa), 멘도사(Mendoza)에 위치한 지질 지층을 의미하며 대규모의 셰일 오일 및 셰일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다국적 석유기업인 Repsol-YPF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총 매장량은 약 9억 2,700만 배럴이지만 추정 매장량은 225억 배럴을 상회한다(역주).

23) 기존 방식으로는 추출하기 힘든 형태로 매장되어 있는 석유 시추를 위해 최근에 개발된 기술로 드릴에 뚫린 구멍으로 모래와 물 그리고 화학제로 구성된 혼합물을 강한 기압으로 분사하여 석유를 더 급고 있는 광물을 부수는 방식으로 석유를 추출하는데 프랙킹(Fracking) 공법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광물을 깨기 위해 투입하는 혼합물의 화학제가 유독 성분을 가지고 있어 심각한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고 지반 침하의 가능성이 있어 환경운동단체 및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역주).

을 사임해야만 했다. 그는 농생태학의 수호자였으며 사회생태학적 전환의 옹호자였다.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그는 글리포세이트²⁴⁾ 사용 금지를 추진하였고 로페스 오브라도르(López Obrador)행정부의 발전 전략의 상징과도 같았던 “마야 열차”²⁵⁾ 프로젝트를 전통적 공동체의 권리를 파괴하는 토목 사업이라고 비판하였다. 그의 사임은 라틴아메리카의 선택적 진보주의의 한계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콜롬비아에서는 수압파쇄법을 통한 자원 추출에 대한 투쟁이 지속되고 있었던 반면에 에콰도르와 아르헨티나에서는 사회적 동의 없이, 또한 에콰도르의 쿠엔카(Cuenca)와 같은 경우에는 공공 협의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추부트(Chubut)같은 경우에는 시민 이니셔티브를 통해 시민 사회가 합법적으로 동원 가능한 제도적 장치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활동들은 당국에 의해 거부되거나 탄압을 당하면서 채굴주의는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자원 채굴의 확대는 경제의 재황성화라는 명목으로 지방 정부 및 중앙 정부와의 연합을 통해 “채굴을 많이 할수록 민주주의는 약화된다”라는 슬픈 방정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라틴아메리카 국가 정부들은 환경보호에 대해 사회적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경제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24)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초제로써 2015년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발암물질로 규정하였고 2018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글리포세이트 제조사인 몬산토에 2억 8천만 달러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하였다(역주).

25) 2018년에 취임한 안드레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멕시코 남동부 지역의 관광 사업 활성화와 지역발전,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써 멕시코의 세계적인 휴양지인 칸쿤을 출발해 치아파스, 타바스코, 캄페체, 유카탄, 키타나로 등 5개 주를 통과하며 고대 마야문명 유적들이 집중되어 있는 팔렝게를 연결하는 총 1,500km에 달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이지만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유물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고 심각한 환경파괴를 가져오자 건설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4월 멕시코 법원은 정확한 환경영향평가가 나올 때까지 “마야 열차” 공사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역주).

안 된다. 예를 들어 진보주의자들은 발전과 불평등의 완화라는 명목으로 신채굴주의와 환경적 약탈을 정당화 하였다. 그런데 이 명목은 권리에 대한 선택적 의제를 설정해버림으로써 사회환경적 요구와 토지와 영토에 대한 원주민들의 주장을 거부하거나 폄하하는 등의 역설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원자재 호황기 동안 라틴아메리카가 경험한 경제성장의 상당 부분은 사회의 최상위 부유층들이 혜택을 보았음을 잘 알고 있다. 포브스지의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억 달러 이상을 소유한 라틴아메리카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연 21%씩 증가하였는데 이는 연 3.5% 성장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평균 GDP 성장률보다 6배 높은 증가율이다.²⁶⁾ 옥스팜(Oxfam)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의 10%가 이 지역 소득의 37%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부 자체만을 두고 볼 때 부유층의 소득 점유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즉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10%가 부의 71%를 축적하였고 최고 부유층의 1%가 부의 41%를 소유하였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라틴아메리카에서 환경 파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이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면서 “사회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 간에는 마치 어떤 모순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양자를 대립적 구도에서 보고 있다. 환경 파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이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는 사실은 이들이 환경 파괴로 인해 오염에 노출된 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이들은 환경 파괴의 결과에 맞서고 채굴주의의 확산에 저항하며 홍수나 가뭄, 폭풍과 같은 기후 변화의 충격에 대처할 경제적, 인적 수단이 부족하다.

요컨대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로 야기된 기후 비상사태와 동물원성 감염

26) Gabriel Kessler y Gabriela Benza, *La nueva estructura social latinoamericana, Siglo Veintiuno*, Buenos Aires, 2020, p. 86.

병에 의해 발생한 위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현재, 라틴아메리카 정치 엘리트들이 여전히 사회환경적 위기의 중요성과 지구의 건강과 인간의 건강 사이에 존재하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관계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이다. 실제로 현재 목도되는 생태적 재앙에 책임이 있는 개발과 무한적 경제 성장 그리고 발전에 대한 어떤 특정 시각과 결부된 인식적 실명과 환경적 문맹이 만연해 있다. 물론 경제적 이익과 결부된 인식적 실명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가로막는지 그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결론은 우리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사실들이 발전주의적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 정부에 있어 채굴주의는 COVID-19로 인해 야기된 위기 속에서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구명줄로써 계속해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다.

6. COVID-19 팬데믹은 생태사회적 전환과 세제 개혁, 그리고 보편적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였다.

COVID-19는 주변부를 중심화한 만큼 생태사회적 전환의 시급성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소수의 전문가와 급진적 활동가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대중적 공론의 장에서 다루는 주제가 되었다. 팬데믹 발생 이전에 마련되었던 포괄적 제안들이 역설적으로 팬데믹의 도움으로 현실화되었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지식인들은 녹색 의제와 기본 소득부터 최빈국들의 부채 탕감에 이르는 다양한 선언문과 제안들을 장려하고 촉진하였다.

최근 몇 달 동안 널리 유포된 상이한 생태사회적 전환에 대한 제안들을 하나씩 자세히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들의 지형도를 그리는 것이 필자의 관심이다. 따라서 몇몇 주요 제안에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미국 민주당 좌파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Green New Deal)로써 대표적인 인사로는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 하원의원이 있으며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과 같은 지식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²⁷⁾ 이 제안은 경제의 탈탄소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계획적이고 민주적인 국가의 수립을 제안한다.

2020년에 이 제안은 에너지, 대중교통, 녹색 주택, 건강 및 교육 등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공 자원 사용을 통해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는 “녹색 자극 계획”으로 번역되었다. 여하튼간에 『승리하기 위한 지구: 왜 우리는 그린 뉴딜이 필요한가』(*A Planet to Win: Why We Need a Green New Deal*)²⁸⁾의 저자 중 한명이자 이 분야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전문가 중 한 사람인 테아 리오프랑코스(Thea Riofrancos)가 주장하고 있듯이 조 바이든의 최근 대선에서의 승리는 “그린 뉴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토론의 장을 열었다.

국제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국제주의 아니면 멸종”이라는 기치 아래 세계적인 언어학자이자 진보주의자인 노암 촘스키(Noam Chomsky)와 같은 진보적 인사

27) 그린 뉴딜은 녹색 경제를 추구하는 정치 세력과 결부된 개혁적 보수주의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2007년과 2008년 사이 유럽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 에너지 효율 20% 개선, 신재생 에너지 20% 확대를 목표로 하여 기후 변화에 유럽이 선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20-20-20 계획의 틀 속에서 탄생하였다. 하지만 그린 뉴딜은 청정 경제라는 이름으로 상업화, 상품화를 심화시키는 생태 현대화 모델을 추구한 리우 +20 녹색경제회의에서 고안된 2009년 유엔 환경 프로그램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 녹색당과 다른 유럽 녹색 정당들이 그린 뉴딜을 정치 강령으로 채택하였다. 하지만 2019년 2월 오카시오 코르테스 미국 하원의원이 그린 뉴딜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M. Svampa y E. Viale, *El colapso ecológico ya llegó. Una brújula para salir del (mal) desarrollo*, Siglo Veintiuno, Buenos Aires, 2020을 참고하십시오.

28) Kate Aronoff, Alyssa Battistoni, Daniel Aldana Cohen and T. Riofrancos, *A Planet to Win: Why We Need a Green New Deal*, Verso, New York, 2019.

들의 주도로 진보주의 인터내셔널(Progressive International)이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2020년 9월 처음으로 화상을 통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 전 그리스 경제부 장관을 역임하였던 야니스 바루파키스(Yanis Varoufakis)는 “우리는 이미 후기 자본주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딜레마는 그 경제가 “권위적이고 과두적일지 아니면 민주적이고 사회적일지”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환경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바루파키스 전 장관은 연 80억 달러의 예산 규모를 통해 화석 에너지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룩하고 육류 소비를 줄이며 유기농 작물 재배에 투자할 수 있는 “국제 생태협정” 체결을 제안하였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경제를 재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재건과 유사한 도전이다.²⁹⁾

그런데 진보주의 인터내셔널은 극우의 확대에 대한 저항과 탈자본주의에 대한 호소라는 세계적 요구를 넘어서 매우 이질적인 성향의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을 모았다. 생태사회적 전환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환경론자부터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³⁰⁾와 알바로 가르시아 리네라(Álvaro García Linera)³¹⁾처럼 자국에서 환경 보호론자들을 탄압한 것으로 유명한 정치인들도 진보주의 인터내셔널에 참여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회생태학적 전환의 역할이 무엇인지 혹은 사회적 정의와 환경적 정의 사이의 접합점에 관한 비전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29) Yanis Varoufakis, “¿El poscapitalismo ya está aquí?..” en *Nueva Sociedad* edición digital, 9/2020, <www.nuso.org>.

30) 1963년생으로 에콰도르의 정치인.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에콰도르의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31) 1962년생으로 볼리비아의 정치인이자 마르크스주의 이론가. 1990년대에는 반정부 공산 반군이었던 투팍 카타리 게릴라군(Túpac Katari)을 이끌었다. 2005년 대선 당시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대통령 후보의 러닝 메이트로 지명되어 대선에 승리하면서 2006년 부통령에 취임하였으며 2019년까지 역임하다 부정선거 파문으로 모랄레스 대통령과 동반 사임하였다.

스페인의 “행동하는 환경론자들”(Ecologistas en Acción), 프랑스의 “금융 거래 과세 및 시민 행동 협회”(Association pour la taxation des transactions financières et pour l'action citoyenne, ATTAC)와 같은 세계적인 환경보호단체와 지식인들이 주도하는 또 다른 이니셔티브가 존재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탈성장에 관한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제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ATTAC은 2020년 5월에 『우리에게 의존하는 것. 생태적, 연대적 재배치를 위한 선언』(*Ce qui dépend de nous. Manifeste pour une relocalisation écologique et solidaire*)³²⁾을 발표하였다. ATTAC는 이 책에서 우리의 생산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생태 계획의 민주적 과정을 창안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재수립과 필수품에 대한 재고, 그리고 탈성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사회의 일부 부분은 탈성장을 하고 다른 일부 부분은 성장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ATTAC은 기본 소득 대신 농생태학,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 생태이동성, 정당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통적 생산 방법을 대체하는 “낮은 기술”(Low Tech) 등과 같은 생태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생태학적 전환 소득”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7.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시민 사회와 그리고 예외적으로 일부 정당에서 생태 사회적 전환을 요구하는 제안이 등장하였지만 이 제안들이 모두 환경적 대상과 결부되지는 않는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다양한 생태사회적 전환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이들 중 필자는 필자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남아메리카 생태

32) *Ce qui dépend de nous-manifeste pour une relocalisation écologique et solidaire*, Attac Francia, 24/6/2020.

사회 및 상호문화 협약”(Pacto Ecosocial e Intercultural del Sur)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협약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 칠레와 같은 국가에서 남아메리카 대륙의 생태영토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환경 운동가들, 지식인들,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추진하는 하나의 제안이다. 2020년 6월에 출범한 생태사회 협약은 각 국가들 및 이미 성취된 사회적 연결점에 따라 상이한 전향점과 의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협약을 지탱하는 축은 돌봄의 패러다임 및 기본 소득, 종합 세제 개혁, 외채상환 중단 등과 같은 사회적 정의와 생태적 정의 간의 연결이다. 즉 에너지, 식량 그리고 생산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사회생태학적 전환과 인종 및 젠더 정의의 핵심인 민주주의와 자치가 이 협정을 지탱하는 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생태사회 협약은 사회적 상상력을 구축하고 변화의 방향에 대한 공유에 동조하며 우리 사회의 가장 다양한 영역에서 투쟁의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 건설에 동의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집단 플랫폼이다.³³⁾

생태사회 협약은 그린 뉴딜이나 탈성장, 혹은 생태적, 연대적 재배치를 위한 선언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제안들과 대화를 한다. 그러나 이 대화는 지구적 남반구에서 잉태된 생태 사회적, 경제적, 상호 문화적 주제를 다루며 이 주제들이 지구적 북반구에 의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사유되는 것을 거부한다. 심지어는 생태적 부채에 대한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잘 다루지 않는 전환에 대한 제언들에 대해서, 그리고 몇몇 경우에 있어 사회의 탈탄소화 문제 그 이상을 다루지 않을 때도 우리는 대화를 거부한다. 생태사회 협약은 라틴아메리카의 문제가 지구적 북반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는 강력한 역사적, 지정학적 비대칭을 구성한다는, 즉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사회생태학적 위기 및 사회적

33) <<https://pactoeosocialdelsur.com/>>과 <<https://pactoeosocialyeconomico.blogspot.com/>>을 참고하십시오.

신진대사의 증가로 인해 지구적 북반구의 생태적 부채는 지구적 남반구의 생태적 부채와 비교했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태사회 협약은 잘못된 해결책에 대해 경고한다. 즉 만일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해결책이 지구적 남반구의 정당한 전환을 보장하는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모델이 아니라 친기업적이고 중앙집권적인 모델을 장려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전환의 자동화에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생태사회 협약은 전환에 대해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견지한다.

마지막으로 생태사회 협약은 일반적 시민들의 삶과는 무관한 추상적 제안을 하지 않고 투쟁, 재존재의 과정, 특히 자연권, 좋은 삶, 사회적 정의 및 재분배적 정의, 공정한 전환, 돌봄의 패러다임, 농생태학, 식량 주권, 후기 채굴주의와 자치와 같이 지구적 남반구, 특히 라틴아메리카에서 최근 수십 년 동안 형성되어 온 개념 지평과 직결된 제안을 하고 있다.

“과학적 사실주의, 국제협력 그리고 사회정의”³⁴⁾라는 슬로건 하에 그린 뉴딜과 연대하는 환경 운동인 “우리의 푸른 아메리카”(Nuestra América Verde) 등과 같은 또 다른 제안도 있었다. 이 제안은 크게 국제적 주제와 사회환경적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 “2020-2030년 사회적 정의와 환경 정의를 경제 회복 계획”에 대한 14개의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에너지 효율성의 증대 및 조세 제도 개혁에 대한 약속과 함께 20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 운동은 비록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의 진보 정당 의원들이 참가하고 있고 이들 중 몇몇은 환경 문제와는 그리 큰 관련을 맺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 속에서 생태사회적 전환과 결부된 포괄적 프로그램의 생

34) 여기에 대해서는 <www.nuestraamericaverde.org/>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성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또한 토론에 참가한 몇 안 되는 라틴아메리카 지역 기관 중의 하나가 건축 정책을 시행할 권리가 없는 유엔 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ECLAC)라는 사실도 첨언할 필요가 있다. 이 기관에 따르면 COVID-19로 인해 촉발된 위기는 사회적 충격 및 거시 경제적 충격에 맞서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내 총생산의 6.1%에 달하는 탈세 및 조세회피가 가능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함으로써 세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개인과 기업에 부과하는 소득세를 강화하고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를 디지털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세 및 공중 보건 관련 세금 등 교정적 조세(Impuesto correctivo)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⁵⁾

유엔 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는 이 지역 정부들에게 보편적 기본 소득을 우선적으로는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계층에게 지급을 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루벤 로 부올로(Rubén Lo Vuolo)와 다니엘 라벤토스(Daniel Raventós) 그리고 파블로 야네스(Pablo Yanes)가 주장하고 있듯이 “오늘날 기본 소득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파일럿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선택된 그룹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의 정책 및 정부의 개입과 관련된 것”이다.³⁶⁾

요약하자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시민 사회로부터 생태사회적 전환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 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관과 환경 운동가 그리고 지식인들이다. 라틴아메리카 국가 정부들에 있어서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은 형식적인 의전이나 단순한 장식품,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화려한 미사여구, 기업의 회계 장부에 있어 숫자가 기입된 하나 이상의 열과 같은 것이며 개발에 대한

35) “No es posible tener austeridad, se requiere política fiscal expansiva: Cepal”, en *Milenio*, 6/10/2020.

36) R. Lo Vuolo, D. Raventós y P. Yanes, “Renta básica, pandemia y recesión”, en *Público*, 31/3/2020.

체계모니적 비전에 의문도 제기하지 않은 채 위기의 원인도 파악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몇 개의 기술적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간주된다.

8. 팬데믹은 돌봄의 패러다임을 의제에 상정하였고 이것이 탄력 있고 민주적인 사회의 건설을 위한 해결책임을 밝혔다.

팬데믹은 우리가 사회와 자연 간의 관계를 변모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잘못된 발전 모델의 기원에 존재하는, 심지어는 과학에 대한 도구적, 객관주의적 시각의 기원에 존재하는 개념이자 연결고리인 인간을 자연과 독립적이며 외부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이원론적이고 인간 중심주의적인 패러다임을 극복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었다. 따라서 우리가 상호의존성, 돌봄, 상호보완성 및 상호성을 담론의 중심에 두는 기존과는 차별되는 패러다임이나 관계적 서사에 갈수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과 함께 생태 페미니즘과 지구적 남반구의 대중 페미니즘 그리고 페미니즘 경제학이 일군 위대한 공적 중의 하나는 가치의 개념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담론들에 대해, 그리고 돌봄과 생활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시하는 사회와 자연 간의 또 다른 가능한 결속들에 대해 열린 자세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COVID-19 팬데믹은 여러 차원에 있어 돌봄의 중요성을 가시화하였다. 한편으로는 땅과 삶의 주기 그리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돌보는 가장 일반적인 방향에서 팬데믹은 돌봄이 얼마나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유로 COVID-19의 시대에 돌봄 정책 및 이 정책의 실행, 신체와 영토와의 관계, 종자 및 농생태학, 돌봄과 식량주권, 돌봄과 지역 자치 업무 등과 같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상이한 성향의 페미니즘, 영토, 공동체, 사회환경 분야의 리더들과 활동가들 그리고 기관들이 주도하는 많은 포럼과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팬데믹은 여성, 특히 빈곤층 여성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사회 조직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3배가 많은 시간을 무급 돌봄 노동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이 상황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점증하는 수요와 보건위기를 통제하기 위해 채택된 봉쇄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야기된 서비스의 감소로 더욱 악화되었다.”³⁷⁾

이러한 연유로 최근 몇 달 동안 특히 페미니즘 경제학에 의해 추동된 주제인 “권리”로서의 돌봄에 관한 성찰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몇 년 전 이 주제와 관련된 권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변호사 라우라 파우타시(Laura Pautassi)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간은 “돌봄의 10년”이라고 말한 바 있다.³⁸⁾ 현재 이 주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명료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돌봄을 권리로 인식하고 남녀 간 성별 격차를 줄이는 포괄적인 돌봄 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공공 정책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성이야말로 팬데믹 이후의 회복을 생각하고 계획하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태사회학적 전환의 기초로써 돌봄의 패러다임은 돌봄과 건강, 돌봄과 교육, 돌봄과 노동, 돌봄과 주택, 돌봄과 지역 행정 등과 같은 사회생활의 다양한 영역과의 접목을 포함하여 다차원적 관점으로부터 숙고할 것을 요구한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생태사회적 전환의 핵심 요소로써 돌봄의 패러다임은

37) CEPAL, “Cuidados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en tiempos de COVID-19. Hacia sistemas integrales para fortalecer la respuesta y la recuperación”, Santiago de Chile, 19/8/2020.

38) L. Pautassi, “Del ‘boom’ del cuidado al ejercicio de derechos”, en *Sur*, vol. 13 No. 24, 2016.

사회적, 정치적 공간에 있어, 가부장제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있어, 인간 삶에 반하는 하나의 기계로써의 자본주의에 대한 고발에 있어, 존엄한 삶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희망과 노력에 있어 오늘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페미니즘들이 가진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9. 팬데믹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집단의식의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 지역 여러 국가에서 대중적 환경주의의 확장을 가져왔다.

라틴아메리카 국가 정부들의 인식적 실명의 정도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사회에서 발생한 집단의식에 있어서의 변화는 큰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여러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걸쳐있는 아마존 밀림의 파괴와 화재가 더욱 확산되자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착취적이고 침략적인 정치 모델에 제동을 걸기위한 세계적인 요구와 변화의 열망과 단결의 자세를 공유하기 위해” 아마존을 위한 제1차 세계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서는 현재 아마존 유역이 직면하고 있는 고의적인 정글 방화, 기업적 농축산 활동의 확장, 산림 벌채, 합법 및 불법 채굴, 석유 산업, 수력 발전소, 무장 단체의 폭력, 사회 지도층에 대한 위협과 살해, 그리고 “아마존 밀림을 탈취하기 위해 정부와 다국적 기업들이 착수한 모든 전략의 목록”³⁹⁾ 등에 대한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환경 문제가 보건 위기, 신채굴주의, 기후 비상사태 간의 연결고리를 밝히면서 다시 한 번 공공 의제로 등장하였다. 한편으로는 삼각주 습지의 화재 및 고의적 방화, 그리고 보호법 제정을 거부하는 이면에 있는 기업체의 로비 활동에 대해 규탄하는 많은 집회들이 열렸다. 다른 한편으로 아르헨

39) Camilo Chica, “Una gran minga, así fue el 1^{er} día de la Asamblea Mundial por la Amazonía”, en *Foro Social Panamazónico*, 19/7/2020.

티나 시민들은 외무부가 주도한 중국에 돼지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25개의 대형 돼지사육 공장을 건설하려는 프로젝트가 환경 운동가들의 광범위한 거부에 직면하고 있는 모습을 목도하였다.⁴⁰⁾ 콩과 노천 채굴 그리고 프랙킹 등을 둘러싼 문제들이 대두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없이 공개 토론회도 열지 않고 사회의 참여를 촉진하지도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대형 돼지사육 공장은 잔인한 동물 착취의 모델을 공고히 하고 환경 및 보건 위험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팬데믹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집단 의식 변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건강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환경 단체들과 과학 단체들이 형질전환 밀 도입에 대해 거부를 했다는 점이다.⁴¹⁾

이와 같은 투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청년 그룹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팬데믹이 야기한 위기는 젠더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를 또 다른 “해체의 명령”에 직면토록 한다.⁴²⁾ 이 주제는 결코 사소한 주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한 중요한 부분이 무관심이나 편리함으로 인해, 혹은 부정 그 자체에 의해 사회환경 문제들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경시해 왔기 때문이다. 이 문제들은 정치 생태학, 환경 경제학, 사회운동 사회학,

40) 여기에 대해서는 Soledad Barruti, Inti Bonomo, Rafael Colombo, Marcos Filardi, Guillermo Folguera, M. Svampa y E. Viale, “10 mitos y verdades de las megafactorías de cerdos que buscan instalar en Argentina”, 2020을 참고하십시오. 이 글은 <https://drive.google.com/file/d/1vx-hjktexu8u_eieu3-wfhivmjvfllog/view>에서 볼 수 있다.

41) “Contra el trigo transgénico: científics y organizaciones populares convocan a una audiencia pública este viernes”, en *La Izquierda Diario*, 17/12/2020.

42) 이 표현은 “아르헨티나 기후를 위한 청년들”(Jóvenes por el Clima de Argentina) 회원인 아나 홀리아 아네이세(Ana Julia Aneise)가 사용한 것이다. 그녀가 속한 단체는 그레타 툰베리가 설립한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 for Future)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Hacia dónde van los movimientos por la justicia climática?”, en *Nueva Sociedad*, Núm. 286, 3-4/2020을 참고하십시오. 이 글은 <www.nuso.org>에서 검색가능하다.

비판 지리학 등과 같은 특정 학문의 영역으로 국한되어 등장하였다. 마치 “환경적인 것”이 우리 공동의 주거지인 지구 전체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듯이 이 문제들이 오직 자연과학 및 지구과학 전문가들만이 다루는 주제로 한정되지 않을 때 각 학문 분야는 부분적 측면들을 살펴볼 것이고 이것들이 합체되어 기존의 다양한 학문으로부터 친숙하게 접근 가능한 또 다른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다.

환경 문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개발주의에 대한 신조를 불편하게 하고 있고 이 신조들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모두가 재생산하고 있는 소유와 생산, 소비와 폐기에 관한 모델들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안락한 지역을 포기하지 않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더욱이 진보 진영과 연결되어 있는 라틴아메리카 사회과학의 중요한 한 부분에 있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사회 과학의 분과 학문들이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발전주의적 신념에 대한 의문제기를 수반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신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준수하는 지 그 범위에 대한 질문을 내포한다.

인류세(Antropoceno) 시대에 환경 문제에 대해 학제적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생태학적 문제의 복잡성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그 횡단적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학제적 언어와 통합적 관점 구성의 가능성을 방해하는 참담하면서도 불행한 결과를 수반할 것이다.

* * *

COVID-19 시대에 라틴아메리카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잠정적 균형은 쓴 맛과 양가적 감정을 우리에게 남긴다. 한편으로는 팬데믹이 미친 경제적, 보건적, 사회적 영향이 너무 광범위하여 아직 회복의 지평선을 예측하는 것인 매우 난

해한 일이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 각국 정부들이 생산 틀의 전환을 제안하거나 채굴주의를 심화시키면서 또다시 잘못된 해결책을 통해 경제를 재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러나 경제 회복을 위한 공공 정책 실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세 정책을 개혁하는 진전도 없는 것도 현실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생태사회적 전환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환경 운동과 시민 사회 단체에 합류하여 경제적인 것과 생태적인 것 간의 잘못된 대립을 해체하고 있다.

그 누구도 생태학적 열쇠의 해체와 생태사회적 전환이 단순하거나 선형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특히 소유권의 강화와 생태계 파괴, 극우 세력의 위험스런 증대 상황 속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2021년에도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사나운 바다를 향해해야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 라틴아메리카 국가 정부들은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주제에 대한 토론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붕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생태사회적 전환에 대한 일정에 관해 우리는 우리의 주민들과 영토에 피해를 끼치면서 지속적으로 지구적 북반구 국가 정부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로부터, 기업적 전환에 의해 그리고 그것의 관점으로부터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논의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정동희 옮김